
‘청년’과 ‘청춘’

김지영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 교수

1.

젊음을 표현하는 어휘도 역사를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청년’, ‘청춘’은 젊음을 가리키는 어휘들이지만, ‘청년’이 국가의 주춧돌이요, ‘청춘’이 낭만적 감성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청년’, ‘청춘’의 의미는 젊음을 사고하고 인식하는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 의식 구조가 만들어 내는 하나의 구성물로서 각 시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과 청춘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띠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 두 어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2.

중세부터 한국에서 ‘청년’, ‘청춘’은 젊음이라는 인생의 주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청년(靑年)’, ‘청춘(靑春)’, ‘소년(少年)’, ‘년소(年少)’ 등의 말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섞여 쓰였다는 점이다. 네 어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은 조선 시대까지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방식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까지 어른과 아이의 구분은 주로 혼인을 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혹은 생식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라는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학도 때지 못한 어린이라도 장가를 가면 어른 대접을 받았고, 서른이 넘은 장부라도 아직 혼전이면 성인 축에 끼지 못했던 풍토에서 특정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세대를 분별하는 인식이 발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이 어린 상태 혹은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청년', '청춘', '소년', '년소' 등은 연령을 뚜렷이 구분하거나 특정한 연령대를 집단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임의적으로 쓰였다. 따라서 어린이, 소년, 청년, 장년 등의 연령 집단화, 혹은 세대 구분 의식 같은 것은 발달하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청년'과 '청춘'은 '靑'이 가리키는 푸름에 비견하여 인생의 시기를 가리켰고, 비유를 통해 의미가 만들어졌던 만큼 '푸름'이라는 단일한 의미만 빌린 '청년'보다는 푸름과 계절을 함께 접속시킨 '청춘'이 훨씬 더 많이 쓰였다. '청춘'의 비유적 함의는 시기나 연령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계절의 순환성에 의거하여 젊음의 상태를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용이했다. 실제로 조선 시대의 문헌에서 '청춘', '청년'은 주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었다. '청춘', '청년'은 인생의 주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회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활용되었던 것이다.

1897년 간행된 제임스 게일의 《한영자전》은 '소년, 청년, 청춘'을 모두 표제어로 실고 이 세 어휘를 공통적으로 'youth'라 번역했다. '소년, 청년, 청춘'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던 고전적 관습이 근대 계몽기에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근대 계몽기에 세 어휘의 주도권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청년'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3.

일본에서 기독교 선교 단체 YMCA가 ‘기독교 청년회’로 번역되고 영어 ‘youth’의 번역어로 ‘청년’이 유력해진 이래, 1890년대 말부터 조선에서도 ‘청년’이라는 말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자주독립과 국민 국가 건설이라는 긴급한 요청 아래 신문명사회를 선취해 나갈 선두 주자로서 ‘청년’의 이름이 주창되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靑年)이야말로 실(實)로 국가(國家)의 중추(中樞)며 주동력(主動力)”이고 “강고(強固)한 국가(國家)는 강고(強固)한 청년(靑年)을 의지(賴)하여 비로소 건설(建設)된다.”¹⁾라는 연설들이 신문, 잡지를 휩쓸면서 ‘청년’은 부국강병의 국가적 요청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주도적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시 청년이 신교육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서구 열강의 침탈 앞에 국권이 위태로운 근대 계몽기의 상황에서는 신지식, 신사상을 학습하고 문명개화를 이룩하여 자주독립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역사적 과제였다. 때문에 아직 유교적 사고에 얽매어 있는 구세대보다 신교육을 수혜한 젊은이들이 문명 조선과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할 주역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신교육을 수혜하고 신문명에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이 곧바로 조선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인물로 직결되어 갔던 것이다. 이때 ‘청년’은 새로운 문물과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을 집단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유력한 용어였다. 봄의 유약한 이미지를 함축하는 ‘청춘’이나 나이 어림을 강조하는 ‘소년’, ‘년소’보다는 푸름이 강조되는 ‘청년’이 집단적이고 진취적인 미래를 상기시키는 데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부모 세대에 맞서 구습을 타파하고 신문명적 국가 건설에 앞장서는 존재여야 했다. ‘청년’은 이제 단순한 인생의 주기만을 가리키는 중립적 어휘가 아니라 사회적

1) <국가의 주동력>(1907), 《대한유학생회학보》 2호, 4-5.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은 세대 분절의 개념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년이 시대적 어휘로 부상하면서 ‘청춘’의 용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근대 계몽기 학회보에서 청춘은 철저히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제한된다. “청춘소년(靑春少年)을 자랑 마시오. 명경백발(明鏡白髮)이 가석(可惜)하도다.”, “청춘(靑春)이 일거후(一去後)에 추색(秋色)이 필지(必至)로다.” 등의 예에서와 같이 ‘청춘’은 거의 예외 없이 짧은 젊음의 시기를 지칭하는 시간적 수사로 쓰였고, ‘청춘을 허송하지 말라’는 부정적 어법 속에서 애국에 대한 매진을 독려하는 데 활용되었다. 신문명의 주제로 호명되고 있던 ‘청년’과 달리 ‘청춘’은 철저히 인생의 한 주기를 가리키는 시간의 단위로 사용되었고, 봄과 푸름의 아름다움은 이 시간의 찰나적 성격을 지칭하는 데 동원될 뿐이었다.

4.

신문명 건설의 기치 아래 ‘청년’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청춘’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인들에 의해 새로운 미의식이 발생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에 사용된 ‘청춘’의 의미는 인생의 한 주기를 가리켰던 이전의 용례와는 현격한 거리를 드러낸다.

감정은 청춘의 그 가장 위대한 문화이다./ 청춘의 생명은 그 감정의 衾褥中에 들어 있다./ 감정은 청춘의 그 생명의 일종의 숨든 錦衣며, 또한 그(생명)를 飽케 하며, 醉케 하며, 歌케 하며, 舞케 하는 그의 유일한 俱樂部이다./ 감정은 청춘의 그 생명의 배양되는 일개의 비옥한 밭이다. 대지이다./ 청춘의 그 특수한 무르녹은 芳醇한 향기와 그 맑은 음향과 또는 그 萬色의 영롱·찬란한, 화려한 광채는 모다 이 감정의 안으로부터 발효되며, 울리며, 流露되어 나오는 者이다./ 감정은 청춘의 그 天來의 문화이다.

청춘의 그 감정은 일종의 三位像의 享樂慾을 가져있다. (1)은 식욕(間食的, 道樂의 食慾) (2)는 美慾, (3)은 戀愛이다./ 이 三位像의 享樂慾은 청춘의 그 감정이 가진 지존의 지위의 욕망의 —이라 하겠다. 그 중의 가장 인기있는 寵運兒는 연애이다./ 연애는 청춘의 식욕의 그 가장 친한 자매며 또는 그 생명의 가장 값가운 죽마의 벗이다.

- 황석우(1923), 〈戀愛(寸想), 어느 愛에의 迫害를 받는 二三의 젊은 靈魂을 爲하여〉, 《개벽》 32호, 49.

1920년대 동인지 문인의 일원이자 근대시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던 황석우가 1923년 발표했던 윗글에서 ‘청춘’은 감정을 생명으로 삼으며, 감정을 통해 찬란하고 화려한 광채를 발휘하는 시기이자 감정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 있다. 이 글에서 청춘의 광채는 욕망과 향락을 부정하지 않으며, 내면으로부터 발효되는 감성의 향기와 음향을 적극적으로 향유한다. ‘청춘’은 열정을 공공연히 긍정하고 욕망에 지존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젊음의 존재를 감성의 차원으로부터 새롭게 이해하는 관념으로 바야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감정과 욕망에 대한 이처럼 적극적인 긍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1920년대 동인지 문인들의 변화된 인간관과 세계 인식에 말미암는다. 1920년대 동인지 문인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아 내부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의 기준이 내재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자아의 개성에 의거하여 내면의 울림을 배양하고 표현하는 일이야말로 시대마다 변화하는 정치적 구호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에게 충실하라.”라는 새로운 명제와 개인의 내면 감정이야말로 진실한 것이라는 동인지 문인들의 의식 전환 위에서 ‘청춘’이 의미했던 젊음은 ‘청년’이 표방했던 공적인 속박에서 풀려나 한층 자유로움을 맛보게 된다. 이처럼 젊음을 감정과 감각, 욕망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시각은 이전의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

다. '청년'이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책무를 강조하면서 젊음의 세대를 분절했던 것과는 반대로, '청춘'은 사회적 책무가 아니라 감각과 열정의 차원에서 젊음을 공공화하면서 새롭게 의미화된다.

5.

동인지 문학인들이 표방했던 가치관의 전환 속에서 변화된 '청춘'의 새로운 의미는 근대 문학의 영향력이 언론 매체와 도서관 등을 매개로 문화의 전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해 가면서 급속하게 확산된다. 문학에서 활성화된 '청춘'의 새로운 감각은 특히 192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중문화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뿐만 아니라 영화, 라디오, 유성기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조선의 대중문화 매체들은 문학이 혁신한 '청춘'의 새로운 감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1923년 '청춘의 열정과 피와 눈물과 한숨과 웃음을 좇아 이름답고 묘하게 쓴 러브레터집'이라는 광고를 붙인 연애 서간집 《사랑의 불꽃》이 불티나게 팔려 나간 것은 출판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사랑과 청춘을 다룬 문예 서적의 상업적 가치를 확인한 조선의 출판계는 《청춘의 광야》(1924), 《청춘의 꽃동산》(1927)과 같은 연애 서간집을 연속 출간했고, 서간 형식을 갖춘 도스토옙스키의 《Poor Folk》를 《청춘의 사랑》(1924)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하여 수차례 재판을 찍는다. 나도향의 《청춘》(1920), 최독견의 〈청춘의 죄〉(1929)를 비롯하여 '청춘'을 앞세운 근대 문학 작품들이 발표되고, 1920년대 중반부터는 딱지본 대중 소설들도 《청춘홍안》(1924), 《이팔청춘》(1925), 《청춘남녀》(1927), 《꽃다운 청춘》(1927), 《무정한 청춘》(1926), 《청춘화》(1927), 《의지할 곳 없는 청춘》(1927), 《청춘의 열정》(1929)과 같이 '청춘'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제목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극장에서는 〈청춘의 夢〉(1923), 〈一刀의 청춘〉(1926), 〈청춘의 반생〉(1928), 〈깨어진 청춘〉(1929), 〈청춘가〉(1929), 〈청춘의 혈〉(1929), 〈버림받은 청춘〉(1930), 〈이팔청춘〉(1930) 등 ‘청춘’을 표제로 한 연극이 상연되었고, 서구 영화들이 〈청춘을 회고하면〉(1928), 〈아-청춘〉(1930) 등의 제목으로 탈바꿈했다. ‘청춘’을 앞세운 통속 소설과 영화, 연극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젊은 남녀의 곡절 있는 사랑 이야기를 그려 냈다. 사랑의 이야기에 ‘청춘’이라는 표제를 앞세우게 된 것은 젊음의 열정과 사랑이 별도의 비유나 우회적 암시 없이 날 것 그대로 공공연히 표방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결과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처럼 감상적 연애 이야기가 유행하고 ‘청춘’의 열정에 몸을 실은 청년 남녀 간의 교제가 공공연한 사회적 화제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청년 학생을 신문명의 주도자로 역설했던 과거의 ‘청년’론이 견제와 규율의 논의로 선회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일본을 풍미하는 음일한 기풍(氣風)은 비행기를 타고 조선에 날아와서 조선의 장래를 촉(囑)할 유일한 자인 청년 남녀의 맘을 고식(蠱蝕)하고 있다. (중략) 조선과 같이 빈궁이 절박한 민족에게는 이러한 부르주아 말기의 퇴폐 기풍을 허용할 여유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상한 복장을 입고 낮에 분을 바르고 다니는 무리는 조선의 적이다. (중략) 강건한 청년 남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대들의 강건한 정신을 가지고 조선을 위하여 헌신하고 조선을 위하여 봉사할 차(次)로 굳게 뭉치라. 그래서 장차 오는 건전한 조선의 자녀들을 그대들의 기치 아래로 모아들이라. 그리함으로 조선으로 하여금 깨끗한 조선, 건전한 조선이 되게 하여라. 세상은 방종한 성욕과 물욕으로 야수에 복귀하려 한다.

- 이광수(1931), 〈야수에의 복귀, 청년아 단결하여
시대 악과 싸우자〉, 《동광》 21호, 43.

1931년 《동광》에 실린 윗글에서 이광수는 아릿한 복장과 음란한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당대 청년들의 퇴폐적 풍조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비단 이광수의 예뿐만 아니라 도시 청년들의 향락적이고 유희적인 풍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식민지 후반으로 갈수록 심각해졌다. '고등 보통학교는 불량배, 불량자 양성소라는 악평'²⁾이 등장하고, '부랑에 침윤하는 야속(野俗)한 도시 청년'³⁾의 생활상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청년 학생들의 부랑 세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감정과 열정을 추종하는 청년들의 세태가 신랄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 식민지 중후반에 들어서면 이전까지 '청년'을 특권화시켰던 개혁 주체의 의미는 현저히 약화된다. 은인과 자중, 준비와 훈련을 강조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청년은 다시 연장자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6.

'청년'과 '청춘'의 서로 다른 의미화 과정과 시대적 길항 관계는, 젊음의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청춘'의 개체적 감성이 '청년'의 집단적 기획과 합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 준다. 구도덕과 단절함으로써 급격하게 주체화되었던 '청년' 집단과 그로부터 파생한 '청춘'의 감각은 개인이 지닌 내면의 열정을 상승시키고 그에 무제한한 힘을 부여했지만, 감정, 욕망, 열정 등 정서적 요소들은 생활 세계와 합리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질서 있는 의미의 총체를 빚어내기 어려웠다. '청년'의 의기와 '청춘'의 감각이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던 식민지 상황에서 '청년'과

2) 김도태(1930), <교원의 입장에서 학부형에 대한 희망>, 《학생》 2권 3호, 3.

3) 신홍우(1927), <실적 생활로 향하는 금일의 청년>, 《청년》 7권 6호, 1.

‘청춘’은 대중문화의 부박한 환락과 쉽게 연관되어 가곤 했다. 인생의 한 주기를 함께 가리켰다가 분화되어 간 ‘청년’과 ‘청춘’의 역정은 개체적 감성과 사회적 전망의 창조적 결합이 가능한 역사 사회적 조건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김지영(2011),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개념사로 본 대중문화의 표상들》(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동아시아 기본 개념 상호 소통 사업 제7회 심포지엄 자료집).
- 이기훈(2005), 일제 시기 청년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소영현(2007), 《문학 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